

한국, 글로벌 전기화 협력 플랫폼 「전기화, 지금(Electrify Now)」 이니셔티브 출범에 참여

- 전기화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추진
- 주요국 정부·국제기구·산업계와 전기화를 위한 국제 공조 활동 본격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23일(영국 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회의(GETES*)」에서 「전기화, 지금(Electrify Now) 이니셔티브」 출범에 동참하였다.

* Global Energy Transition and Electrification Summit

이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기후행사인 런던기후행동주간(London Climate Action Week) 계기에 개최되었으며, 각국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가 참여하여 기후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기화, 지금(Electrify Now)」은 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전기화 확대와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 확충,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브라질(COP30 의장국), 호주·튀르키예(COP31 의장단), 에티오피아(COP32 의장국), 영국, 캐나다, 바베이도스, 필리핀,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이 동 이니셔티브 출범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은 EU 정상순방 계기 EU 에너지집행위원장과 기후부 장관 양자면담에서 유럽연합(EU)의 요청에 따라 참여국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기화 우수사례 공유 및 국가별 이행계획 강화, ▲전력망·저장장치·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규제 협력, ▲개도국(EMDEs)의

에너지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술 지원 등 3대 협력 방안에 뜻을 모았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화를 확대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이니셔티브는 전기화를 글로벌 에너지 의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창훈 공동위원장이 「전기화, 지금(Electrify Now)」 출범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전기화 확대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가입 의사를 전달하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은 전기화 가속화가 기후목표 달성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와 경제 회복력 증진에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전기화 확대, 전력망 혁신 및 청정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9월 유엔총회 기후주간 고위급회의와 11월 COP31 전기화 정상급 세션 등 후속 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기화 분야 국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EU Electrify Now 이니셔티브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유재영 (044-201-6600)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박정욱 (044-201-6609)



□ 이니셔티브 개요

- 2026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비용 안정화, 기후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글로벌 캠페인
- '26년부터 COP33이 열리는 '28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금융기관(MDBs)의 3대 연합체로 구성
- (주요참여국) EU 집행위원회, 영국, 튀르키예 및 호주(COP31 의장단), 에티오피아(COP32 의장국), 캐나다, 바베이도스 등

□ 향후 협력 과제

-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기회를 발굴하여 국가별 실행계획을 강화
- 그리드, 저장장치, 재생에너지 발전의 규제 및 투자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파트너들과 협력
- 국제금융기구(IFIs), 자선단체, 민간 부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신흥국의 자국의 에너지 탄력성과 경제 번영을 도모

□ 향후 주요일정(2026)

- (6.23., 런던 기후행동주간)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회의 (Summit)에서 공동 성명 발표
- (9월, 유엔총회 기후주간) 글로벌 전기화 고위급회의(Summit) 개최 (고위급 공개 성과물 발표)
- (11월, COP31) COP31 의장단과 공동으로 고위급(Leaders'-level) 전기화 세션 개최